



2018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이 6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국군 광주병원에서 열렸다. 문화전당에 전시된 1995년 제1회 행사 '대상' 수상작 크조의 '잃어버리기 위하여'.

난민·세대·젠더...다양하게 풀어낸 '경계'

프레스 오픈서 만난 작품들

2018 광주비엔날레의 특징은 단일 예술 감독 대신 다수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점이다. 올해 주제인 '상상된 경계들'을 기획의 출발점으로 삼은 11명의 큐레이터들이 선보인 7개의 주제전은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다.

6일 프레스 오픈에서 공개된 작품들은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문제 등 오랫동안 유럽의 이슈였던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젠더와 인종, 세대간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섹션은 테이트모던 갤러리 시니어 큐레이터 클라라 킴이 26명의 작가를 초대해 기획한 '상상된 국가들/모던 유토피아'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수사로 포장된 채 추진됐지만 결국 빛바래버린 전 세계 각국의 근대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2전시실과 3전시실에서 만나는 그리티아 가워워 기획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는 동남아 각국의 지정학적 복잡성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크리스틴 Y.킴과 리타 곤잘레스가 기획한 4전시실의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

11명의 큐레이터가 선보인 7개 주제전 다채로운 작품
문화전당 3개 전시...북한미술전 집체·수묵화 선보여

의참여 정치'는 무거운 주제의 작품들을 경쾌하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차단과 봉쇄의 역사, 냉전의 잔재, 첩보, 취약한 민주주의, 예술의 주체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은 요즘 세대에 걸맞는 장치들을 활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5전시실의 '귀환'전은 지금까지 비엔날레가 소홀히 해왔던 광주비엔날레 아카이브 작업을 구제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시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3개의 전시는 비엔날레관에서 열린 전시보다 훨씬 다양한 스토리와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역대 비엔날레에서 출판된 작품들이 다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1995년 제1회 행사에서 '대상'을 받으며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2000개의 맥주병으로 만든 크조의 '잃어버리기 위하여', 23년만에 등장한 안티비엔날레 만장, 이응노 작가의 '군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눈에 띄는 섹션은 '정연심&이완원'이 기획한 '지진:충돌하는 경계들' 전이다. 스타 작가인 나라 요시토모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에 일본 시라오이 마을의 이야기



마르완 레차마우이 '블레이즈:한국사절단'

를 담은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9·11 이후 심화된 감시와 시민권의 문제를 손꼽은 크기의 사진 수만장으로 구성된 하산 엘라히의 작품 '수많은 작은 형제들'도 인상적이었다. 또 수천개의 플라스틱 튜브를 활용한 거대한 설치구조물을 통해 낭비와 과잉의 문제를 드러낸 타라 노노반의

'무제'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았다.

김만석&김성우&백종욱이 기획한 '생존의 기술: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는 한국 작가 35명을 초대해 역동적인 전시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다. 백종욱이 기획한 '대정적 상상력' 섹션은 박상화의 '2018 무등산 판타지아' 등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김만석의 '집결지의 비장소'는 창조원 복합 2관의 3층 구조 공간을 잘 활용해 흥미로운 전시를 만들어냈다.

문범갑 큐레이터가 선보인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는 북한 미술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집체화를 비롯해 한국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산수화 등 다채로운 조선회화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문 큐레이터는 "북한 예술은 국가가 주도한 선전미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그대전부는 아니다"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북한 미술의 다양한 특징을 편견없이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5·18의 현장인 옛 국군광주병원에 설치된 카테르 아티아와 아핏차퐁 위라세타룬의 작품들은 공간이 주는 목격함이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제4회 14세&세계&경계

내가 힘들어서 울 땐 엄마가 무슨 일이나면서 위로해 주지만 엄마가 힘들어서 울 땐 내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것.

이영주 / 좋아하는 곳 : 영화관

온라인에서의 나와 오프라인에서의 나는 엄청나게 다른 것 같다. 온라인에선 성격이 밝고 얘기도 잘 나누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데 오프라인에선 성격이 조용하고 어둡고 얘기는 잘 못 나누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말투나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엄청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이 진짜 나인지 오프라인이 진짜 나인지 잘 모르겠다.

익명 / 가보고 싶은 곳 : 일본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6일 프레스 오픈 행사가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진:충돌하는 경계들' 전시장에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작품 '14세&세계&경계'가 실린 광주일보가 전시돼 있다.

광주일보 13개 지면이 하나의 작품으로

작가 시타미치 출판작 '14세&세계&경계' 눈길

2018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문화창조원 4관에는 광주에 살고 있는 14세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실린 '광주일보' 지면이 전시돼 있다. 일본 작가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14세&세계&경계'라는 작품이다.

시타미치 작가는 광주 시내 14세 아이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 가보고 싶은 곳, 자신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이번 작품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고, 기사가 실린 '지면 자체'를 전시하는 게 작품의 완성이다.

광주일보는 지난달 16일부터 광주일보 1면(매주 금요일)에 첫 작품을 실는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3편을 게재했다. 6일 현재 전시장에는 8월 17일자, 24일자, 31일자 지면이 전시돼 있다. 작품이 실린 신문

지면은 매주 하나씩 첨가돼 11월 9일자로 마무리되면 모두 13개 지면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손글씨로 작성한 설문지도 함께 전시돼 있다.

친구와의 우정을 고민하고, 버스를 타고 경계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부모님의 울타리(경계)를 벗어나는 데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느끼는 14세 아이들의 이야기는 '전두환, 알츠하이머 진단 투병?', 정부의 일자리 정책, 교육부 장관 개각, 폭염, 아시안게임 개막 등이 기사와 함께 실려 눈길을 끈다.

작가는 "신문 주 독자층인 어른들이 자신이 아이였던 시절을 돌아보고, 강렬하게 세계를 바라보던 감각을 되찾아 때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0 7 6 2 1 4 3 0 2
0 5 1 7 9 9 0 2
0 0 0 1 1 0 0 0

116 40 point
110 20 point
108 14 point
107 12 point
106 10 point
105 8 point
104 6 point
103 5 point
102 4 point
10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